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12월 30일 (제98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결산할까요?

나는 매해 우리 교단 성도들에게 표어를 제시한다. 2000년 ‘천배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자!’를 시작으로 2001년 ‘경쟁력 있는 한 해가 되자!’, 2002년 ‘범이 날개를 다는 축복의 한 해가 되자!’, 2003년 ‘질적 향상을 위해 질주하라!’, 2004년 ‘정상을 향하여 도전하라!’, 2005년 ‘최고의 해를 만들자!’, 2006년 ‘역사의 중심에 서는 한해가 되자!’, 2007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한 해가 되자!’, 2008년 ‘내가 서 있는 땅을 기름지게 하는 한 해가 되자!’, 2009년 ‘매일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자!’, 2010년 ‘잃어버린 것을 찾는 한 해가 되자!’, 2011년 ‘예수중심으로 사는 한 해가 되자!’, 2012년 ‘New Start, 새로운 출발! 다시 시작하자!’, 2013년 ‘후회 없는 한 해를 살아보자!’, 2014년 ‘복 있는 자들이 되자!’, 2015년 ‘다시 시작하자! 30년!’, 2016년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하자!’, 2017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자!’가 바로 그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표어를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성전 안에 써서 붙여놓으려고? 아니다. 여러분에게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 해에 만큼은 ‘이것을 목표삼아 살아라’, ‘이것을 목표삼고 달려라’, ‘이것을 목표삼고 자신을 살피라’ 하는 의미에서다. 그 표어가 단지 그 한 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해만큼은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영·혼·육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양새를 갖춰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우리 교단의 표어는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살자!’였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얼마나 목표에 근접했는지,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돈보다, 명예보다, 세상보다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살았나’ 돌아봐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내년의 표어를 제시한들 무가치하지 않겠는가.

표어는 구호가 아니다. 실천이다. 한 해에 주어진 표어를 늘 가슴에 새기고 산다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신앙도 성장하게 될 것이다.

올해까지 표어대로 살지 못했다면 내년에 주어지는 표어대로 살도록 노력해보자.

영광스런 2018년을 보내며

항상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표현을 쓰곤 한다. 그러나 2018년은 영광스런 한 해였다고 말하고 싶다.

새해 벽두부터 남북화해의 기운이 불기 시작하더니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등, 세기적인 뉴스들이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다. 물론 여전히 난관도 많고 가야할 길도 멀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2018년이 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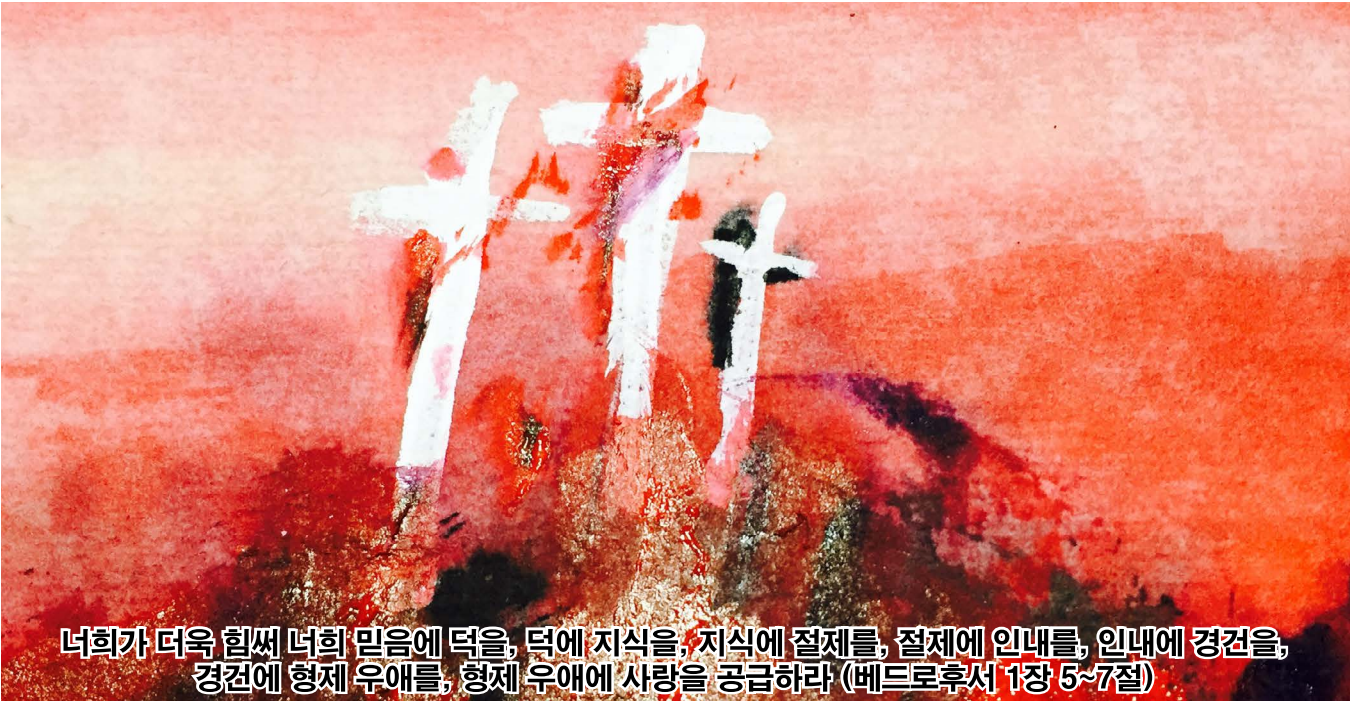
우리가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살자!”고 선포한 2018년이 각자에게 어떤 비전과 무게로 작용되어왔는지는 각자 올 한 해를 어떻게 달려왔나에 따라 느끼는 바가

의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는 일은 우리 인생에 있어 참으로 빛나는 일이다.

목사님의 목회는 살리는 작업의 연속이라고 할 것이다. 날마다 화분에 물을 주며 화초를 살피는 사람처럼,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비록 그 몸이 탈진되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맡겨진 양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며 노심초사하는 모습은 목사님을 닮고자 하는 모든 종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태산을 뒤흔들 듯 사자처럼 웅맹하나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온 산을 헤매는 섬세하고도 헌신적인 사랑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임을 자주 느낀다.

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봐야한다. 자신을 욕하고 떠났던 제자나 성도들이 돌아와도 언제나 따스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사랑의 목자,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 항상 애쓰는 분이지만, 자신에게는 그토록 가혹한 원칙으로 스스로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노력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께서 12명의 천사라도 부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십자가의 대업을 이루는 순간까지 절제에 절제를 거듭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 더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서로 다를 것이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온 남북평화통일의 역사는 다 함께 금지와 자부심을 가질만하다고 믿는다. 지극히 작은 교단에 이러한 큰 사명을 맡기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열린 문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그 누구도 닫을 자 없다. 역사의 거스를 수 없는 파도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기대하는 이 즈음이면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덕담을 나누곤 한다.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와 나름의 성과를 이룬 사람에게는 축하와 박수를 보내주고, 뜻한 바를 아직 이루지 못해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새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전폭적인 격려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 뛰라는 격려와 소망은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자주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 넘어질 수는 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 그러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찢겨줘도 도로 더러운 우리에 드러눕는 돼지가 되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목사님께서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거울을 보고 자신을 때려가면서까지 스스로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마26:53~54).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좌절하지 말자. 다시 시작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러나 2018년을 마감하며 이제 새해에는 더 진보하는 삶,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역사의 변두리에서 비고 돌고 하는 나약한 삶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 당당히 서서 자신을 갈고 닦길 바란다. 구제 받고, 용서 받는 삶에서 남을 구제하고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진보하고 성장해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송구영신예배

일시: 12월 31(월) 저녁 10시

장소: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1:30)

길과 돈을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라

벌써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이 불쑥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처럼 해후한 친구와 저는 제3한강교를 걸으며 지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자네가 내 아내와 자식을 맡아주게. 내가 병들어 얼마 살지 못한다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무척 놀라서 “내가 어떻게 자네 아내와 자식을 맡는단 말인가?” 했더니, 그는 “지난 날 내 동생 대학 입학금을 대준 것도 자네였고, 내가 취입할 때 보증을 서준 것도, 병원비를 대준 것도 자네였네.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도 자네밖에 내 가족을 맡길 사람이 없어 이렇게 자넌 찾아왔다네.”라고 했습니다.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줘라

그날 저는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밤이 깊도록 심란하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원을 거닐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세상을 하직할 때 내 가족을 맡길 사람이 있는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사람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는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고 사람을 얻기 위해 부심했습니다. 그리고 20여년이 흐른 지금, 제게는 저를 위해 생명보다 귀하다는 물질을 아끼지 않을 사람, 위기가 왔을 때 저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진정한 동지로, 동역자로, 그리고 친구로 말입니다. 그들이 곁에 있는 것이 제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곧 힘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 역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사(歷史)란 곧 사람들의 행적이고, 세계사(世界史) 역시 시대별로 분류된 사람들의 발자취를 기록한 것입니다. 경제사(經濟史)도 사람들의 업적 아닙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들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과 돈을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얻어 성공적인 삶을 산 지혜로운 믿음의 선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자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아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자인지라 그돌라오펠과 동맹한 왕들이 침입하여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을 때 318인을 거느리고 쫓아가 조카 롯을 찾아왔습니다.

318인은 바로 믿음과 정의의 용사들로 아브라함의 인맥이었습니다(창14). 아브라함의 인맥형성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는 그의 아내 사라가 향년 127세로 죽었을 때도 잘 나타납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헛 족속에게 아내를 묻을 매장지가 없다고 하자, 그들은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창23:6)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헛 족속과 좋은 인맥을 형성해놓은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 37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다. 이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배후에서 그를 돕고 따르던 자들로 다윗의 조력자이며, 다윗의 인맥이었습니다. 요셉이 악관의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인맥형성의 결과입니다. 그는 보디발 아내의 보복성 위증으로 옥에 들어갔지만, 술관장을 만나 인맥을 쌓았기에 바로의 꿈도 해몽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창40). 이방인 중에서도 요셉을 중용한 애굽 왕 바로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택하여 교육시켜 등용한 느브갓네살 왕, 그들은 사람을 얻음으로 국가를 융성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 하나만 얻어도 그로 인해 엄청난 인맥을 쌓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신이 유방에게 “저는 백만 대군을 움직이는 자이오나 왕께서는 백만 대군을 움직이는 자를 좌지우지하는 분입니다.”라고 한 것처럼, 사울이 지혜로운 자였더라면 만만의 칭호를 받은 다윗을 통해

많은 사람을 얻고 힘을 축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또한 다윗의 손자이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아비 대의 중신들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을 중용하더니 나라가 두 동강 나고, 할아버지, 아비 대에 주변국들의 존경과 조공을 받던 시온의 영광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요셉을 잃은 보디발의 아내, 아굽을 잃은 라반도 동일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삼고초려(三顧草廬)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아들 같은 나이의 제갈량이었지만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세 번씩이나 자존심을 무릅쓰고 찾아가 당대 최고의 전략가를 얻었기에 삼

국 통일 대업을 도모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를 얻고, 70인의 제자를 얻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휴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यो, 인맥은 금맥입니다. 인맥이란 것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해주고 갈 수 없는 곳에 날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을 얻으려면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감동을 시켜야 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름은 산성 문빛장 같으니라”(잠18:19). 인제는 인정을 해주면 목숨을 걸고 충성하지만, 무시하면 가차 없이 등을 돌립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인정해주고 믿어줘야 합니다. 인연은 하나님이 맺어주지만 관계는 내가 형성해가는 것이니까요.

꿀을 얻기 원하면서 꿀통을 발로 차면

안 됩니다. 꿀을 따다주는 벌이 쏜다고 벌집을 건어차 버리면 꿀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벌들이 달려들어 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들을 신뢰하고 인정해주면 두 말할 것도 없이 목숨을 걸고 충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는 가장 큰 지혜가 있습니다. 검사, 판사, 의사, 목사..., 사, 사, 사가 많은데 그 중에도 가장 귀하고 존경 받는 것은 봉사(奉仕)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자, 봉사정신이 있는 자에게 사람은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에 고이고, 물이 있는 곳에 고기가 모이듯, 낮아지는 자에게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8). 그래서 그 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리고, 그 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낮아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벌과 지식, 문벌의 자랑거리를 제하셔서 낮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낮아져 섬겼더니 루디아 및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자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자는 성공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실패한다

또한 사람을 얻으려면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의리(義理)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곧 그것은 사람에게에는 신뢰요, 하나님께는 믿음이요. 이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 만남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왕자로서 차세대 왕좌에 오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다윗을 위하여 아버지 사울의 계계를 알려주어 다윗을 살려냈습니다. 그 후 사울의 왕권을 이어 받은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찾아 궁에서 살게 했고 그와 겸상을 할 정도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잠10:2),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잠11:4).

탐을 쌓기는 어렵지만 공들여 쌓은 탐을 허물기는 한 순간이듯 사람을 얻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쉽습니다. 사람을 얻는 지혜와 더불어 얻은 사람을 잃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그네는 경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다르다. 사람의 말은 죽은 사람이 들질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가 듣고 살아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귀신도 듣고 두려워 움직이게 만든다. 이전에도 귀신들이 있었지만 사람의 말로는 결코 귀신을 제압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귀신들은 자기정체를 드러내고 사람의 몸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누구도 광풍을 멈추게 하거나 사나운 물결을 다스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마귀를 꾸짖고 바람도 멈추고 물결도 잔잔케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만물이 다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도 사람의 말만 듣고 살 때에는 늘 욕하고 싸우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욕하고 싸우던 것을 버리도록 변화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즐거운 유혹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오게 만들었다. 사람의 말은 우리가 가진 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질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는 모두들 무언가 애쓰며 노력한다. 세상문화라는 것은 일종의 경쟁인데, 우리도 이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가고 있다. 더 좋은 가구, 화장품, 의복, 자동차..., 사실 먹고 입고 살기에는 큰 불편도 없으면서도 무언가 더 좋은 것, 새 것에 대한 경쟁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를 망가뜨려가고 있다. 명예욕도 엄청난 경

쟁이요, 사치도, 허영도 대단한 경쟁이다. 이 경쟁 때문에 ‘뱀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도 생겨났다. 남을 질투하는 것, 중상모략 하는 것도 이 경쟁 때문이다. 이 경쟁은 결국 사람을 멸망으로 휘몰아간다. 우리도 이전에는 남보다 더 뛰어나고 좋은 것 가지려고 경쟁하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받고 세상문화의 경쟁을 포기한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몸부림이 시작된다. 이것을 성경은 ‘선한 싸움’이라고 한다. 곧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여 더욱 일하는가를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평생은 결코 경쟁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의(義)를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다. 그러나 세상은 그 분이 죽어가는 데에서도 그분의 뜻을 제비뽑아 경쟁하며 나눠가진다. 하늘에 속한 자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이유도 경쟁하려 대들었기 때문이다. 경쟁은 교만이요, 사탄의 속성이요,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죽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데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경쟁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이다. 경쟁을 포기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말이 씨가 된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선물 받으신 소형 녹음기를 하루 동안 몸에 지니시고 언어생활을 녹음해보셨다고 한다. 하루를 보내신 후에 녹음된 언어들을 들어보시니 초긍정적이에요, 믿음의 언어였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은 종은 즉시 초소형 녹음기를 구입해서 동일하게 하루 동안 몸에 지니고 언어생활을 녹음해보셨다. 하루를 지낸 후에 들어본 녹음된 언어들은 나 자신을 너무도 부끄럽게 했다.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이렇게도 불만이에요, 불평이며, 세상적이고, 불신앙의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종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 않고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수를 줄였다. 성경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잠17:28),

또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씀한다(잠18:21).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말로 창조하시고, 말로 축복하시며, 말로써 약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은 말로 기도하고, 말로 전도하며, 말로 축복하여 이를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신다(막 11:23~24). 목사님은 내가 한 말이 나를 둘러매며, 그 말을 타고 달린다고 교훈하신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며 나의 언어생활은 어떠했으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 재갈 먹이며, 파수꾼을 세워 사람의 말이 아닌 창조적 믿음의 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입술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야 할 것이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힘써 하나님을 알자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라비 재커라이어스(Ravi Zacharias)가 자신의 책에 쓴 일화다. 그는 몇 년 전 가족들과 함께 영국의 베드포드(Bedford)라는 도시를 방문했다. 그 도시의 중심에는 세계 역사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또 그만큼 많이 읽힌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John Bunyan)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라비와 그의 가족들은 그의 생애와 출간된 모든 언어의 사본들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을 둘러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박물관을 나서며 라비는 안내 창구에 있는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간단하고 작은 책이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다니 놀랍지 않나요?” 그러자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음, 맞는 말인 것 같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 말에 기절할 정도로 놀란 라비가 그 이유를 묻자, “글쎄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라는 무미건조한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 도시의 상징적인 인물이 쓴, 세계적인 명성의 작품을 전시한 박물관을 안내하는 직원이 정작 그 작품을 읽어본 적이

없다니,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그분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읽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같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은 잘하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세계에서 천로역정보다도 훨씬 많은 언어들로 번역되어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힌다는 성경을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어쩌면 그 안내 창구 직원의 모습은 세상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소개하며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온다. 혹시라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다면,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깨닫는 일에 소홀했다면, 다가오는 2019년에는 좀 더 힘써 하나님을 알자. 손에 보물을 쥐고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그것은 그냥 아무 가치 없는 돌맹이와 다를 바 없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6:6).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누구나 다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다. ‘향수’(nostalgia)라는 말은 원래 ‘고향이 주는 고통’이란 뜻의 헬라어 합성어이다.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마음의 병!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 막상 가 봐도 왜곡된 회상들이 존재하는 고향 현실에 실망하기 일쑤다. 그저 내가 알던 그 추억어린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음에 안타까워할 뿐이다. 성경에서 소돔성을 탈출하는 롯의 아내가 보인 행동은 과거로부터의 탈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가 과거와 친숙한 이유는 과거만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을 사는 존재인 인간은 늘 한 방향으로 가야한다. 미련어린 과거를 뒤로하고, 치열한 현재를 살며, 두근거리는 미래를 향해 달려야 한다. 과거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에덴으로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화염검으로 출입문을 봉쇄해버리셨다. 돌이키고 싶은 과거의 죄와 실수에 대한 기회조차 주지 않으셨다. 과거 에덴의 향수는 사라지고, 쫓겨난 에덴 동쪽에서 기다리는 건 힘겹게 개척해야할 척박한 땅과 인

간의 수고로운 미래뿐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인류의 미래까지 다 바뀌 버릴 것이라 약속하신다(창3:15). 시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적용된다. 2천 년 전 십자가 사건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두 영향을 준다. 예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참으로 신비이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사는 인간에게 과거가 중요할지 모르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시간의 구분이란 무의미할 따름이란 말이다. 우리는 쟁기를 손에 잡은 현실에서 자꾸 뒤를 돌아보려 한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다(눅 9:57~62). 어떤 미래인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다. 과거의 실패와 성공조차 이제 모두 묻어두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한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전 7:10). 송직화 목사 jesus_allinall@hanmail.net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공연 후 목사님과 함께(서울예수중심교회)



수고한 모든 자들과 함께(인천예수중심교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생일이면 으레 부르는 생일 축하송을 예수님의 생신인 크리스마스에 온 성도들이 함께 부르니 남다른 감동이 밀려왔다. 총회장 목사님은 “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시고 다시 살지 못하셨
다면 이 생일축하 노래는
부당하지요. 그러나 그
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
다.”라고 말씀하셨다.

뭍으신 말씀이다. 예수님
 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
 하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
 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신을 기념하는 것이 아
 니라 축하드리는 것이다.
 이어 목사님은 “내 생일
 에 손주들이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춤도 추고 재롱
 을 떨면 그렇게 기쁠 수
 가 없습니다. 손주들이
 고맙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마음
 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생신을 맞아 우리 아이들
 이 오랜 시간동안 애써서
 여드리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준비한 것을 보여드리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에 이어 유아부의 무용과 유치부 아이들의 ‘춘향전’이 이어졌다. 춘향이 이몽룡을 기다리며 절개를 지킨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절개를 지키라는 영적 메시지가 있었다. 그리고 초등부 아이들이 다채롭게 꾸

민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가 함께 공연한 '느헤미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어떠한 찬사도 아깝지 않는 최고의 작품이었다. 52일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지도자 느헤미야의 고민과 역경을 잘 그렸다.

목사님은 공연이 끝난 후에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귀도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좌절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전진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천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 생신을 축하하는 기념공원이 있었는데, 모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예수님 생신 축하공연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너무 멋지고 너무 완벽한 작품이다. 이를 위해 이들이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만은 아신다. 성벽을 쌓은 자들을 느헤미야가 기억하듯이.

끝으로 이번 공연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모든 분들과 부모님들과 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기자 신묘수 전도사

회개의 선물

∴ 올림 있는 삶 ∴

20대 초반 성품이 온순한 남편을 만났다. 고아원에서 자라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쓰레기통을 뒤져 허기진 배를 채우곤 했었다. 그의 따뜻한 매너에 동정심인줄 알면서 삶의 인연을 맺었지만 일찍 알코올에 젖어버린 남편은 2층에서 추락 후 허리골절과 무릎관절수술로 직장생활을 거의 못했고, 술에 의지하여 가족을 힘들게 했다.

아플 시간도 없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했던 나는 더욱 남편을 증오하고 무시하고 한마디로 사람의 탈난 쓴 악녀였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지경에 이른 남편은 급기야 세숫대야에 많은 피를 토했다. 그날 밤 나의 회개가 시작되었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난 남편은 현관문을 향해 시커먼 옷 입은 사람들이 왔다고 문 잠그라 몇 번씩 되풀이했고, 직감적으로 저승사자라 생각한 나는 뜯논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토록 저주했던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갑자기 그가 불쌍해졌고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그 눈물은 다음날 오후까지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인간은 왜 만들어졌나? 왜 이런 슬픔이 존재하는가? 죽으면 그만인데,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가?...’

깊은 잣더미 속에서 해멜 때 갑자기 그 동안 남편에게 악하게 대했던 장면들이 하나씩 하나씩 기가 막히게 한편의 영

화처럼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가슴이 찢어지듯, 녹아내리듯 애통해할 때 누군가 이마를 계속 쓰다듬어주었다. 어린 딸인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 딸은 곤히 자고 있었고, 지금은 그 손길이 예수님의 위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숨이 막히고 아무리 들이마셔도 산소가 충족되지 않는 증세가 24시간 주기에서 5분, 3분으로 빨라졌고, 전 직장에서도 권고사직을 당했다. 실제로 이런 증상으로 누가 죽었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는데 나 또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다. 나의 강한 의지도 흐리는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없었고, 다음날 의사해하는 직장 동료들 앞에서 그동안 남편에게 했던 악한 일을 통회 자복했다. 그날 오후 밥을 푸던 중 쌓아올린 밥그릇이 스르르 아래로 미끄러지자 놀란 나는 가느다란 비명을 질렀고 갑자기 두 팔을 벌리며 한 바퀴 반을 돌았으며 허리는 뒤로 45도로 확 꺾였었다.

“내가 왜 이러지? 어…, 어…, 이러다 되진탕에….” 주위에선 “평생 맞고만 살았나? 귀신이 들어갔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주저앉은 나는 눈에 힘이 빠지고 허벅지가 풀리면서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나는 내 병이 나음을 느껴고 즉시 복용하던 심장약을 버렸다. 가벼워진 몸이 날아갈 듯 했고 주변에서

들리던 소음이 너무나 청명하게 들려 귀
를 몇 번씩 후비곤 했다.

다음날 남편의 죽음을 예견하고 장례절차를 아파트 경비원과 의논하던 중 같은 아파트에 사는 두 부부가 다가왔고 곧 예수중심교회로 전도되었다. 친척도 별로 없는 남편에게 기도라도 많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억지로 따라왔는데 하필 맨 앞자리에 앉았고 강력한 확신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위력에 나의 아집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후 성경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귀신의 속성과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 믿음이 성장해갔다. 남편은 11년여의 긴 시간 알코올 치료병원에 입원하였지만 지금은 퇴원하여 가게 일을(식당) 도와주고 있다. 가끔 옛 습성이 되살아나려하면 회개의 순간이 떠오른다. 그럼 바로 눈가에 눈물이 맺히면서 옛 습성을 쫓아버리게 만든다.

가족의 관계회복과 화목을 유지시켜주는 회개의 선물, 당신도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시키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목사님께 더욱 감사드리고, 수많은 교회 중에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추성숙 집사

연말결산은 내 삶의 고백!

제가 늘 임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 요일밖에 몰라, 오늘이 며칠이에요?” 주일에배를 기점으로 저의 한 주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 날들이 흘러 올 한 해도 어느덧 12월의 끝자락에 와 있고, 2019년도 새해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 습관처럼 하는 일이 있는데 연초에 시작된 교구성도 현황표를 꺼내놓고 총결산을 합니다. 천국가신 분들, 전도되어 오신 새 신자들, 이사 오거나 가신 분들, 또 개인적으로 수첩과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들을 체크하며 정리합니다. 정리하다보면 어떤 일들은 뿌듯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은 후회로 남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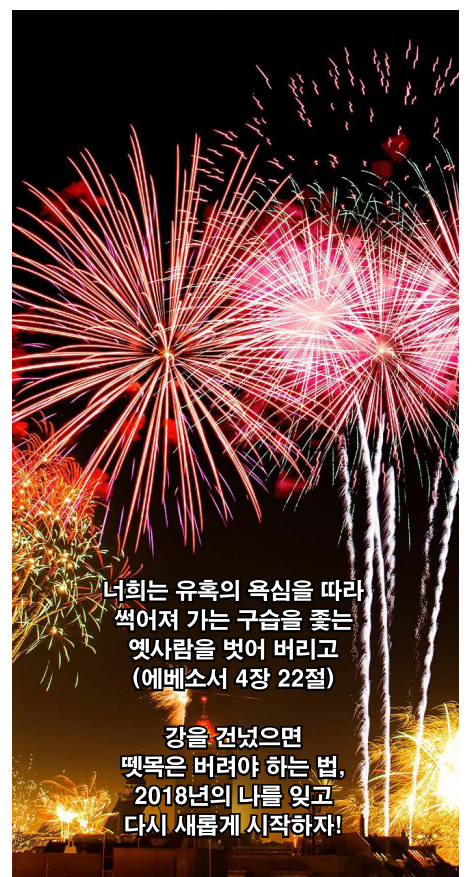
어느 해인가! 그 날도 연말결산을 하던
중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한없이 울
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명단을 정리하
다 1년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름을 지
우려는데 내가 지워버리면 하나님 아버
지도 지우실 것 같아 결국 그 이름을 지
우지 못하고 교구성도명단에 다시 적어
넣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 당신의 소유를 각기 그 재능대로 맡깁니다. 다시 돌아온 주인의 관심은 오직 하나, ‘남겼느냐’입니다. 남겼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 남기지 못했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 어떤 핑계도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이 말씀은 저 스스로도 핑계치 못할 제 사역을 총결산해주는 말씀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날까지!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좋은, 처음보다
 끝이 더 복된, 첫 마음보다 끝 마음이 더
 아름다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변함없
 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길 소원해봅니다.

김정옥 전도사

icc0115@naver.com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강을 건넌다면
뗏목은 버려야 하는 법,
2018년의 나를 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